

JP모건 출격한 K-제약바이오, 글로벌 공략 발판 마련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LG화학, 주요 파이프라인 선배
한미약품, 신약개발 전략 공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최대 행사에서 잇달아 주목을 받고 있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0~13일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유력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및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행사다.

LG화학은 13일 발표기업으로 참가해 통풍, 항암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및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LG화학은 현재 21개의 전임상 및 임상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이 중 가장 앞서 있는 통풍 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는 다국가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통풍 환자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이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신약개발 경쟁력을 알리고 있다.

의 요산 강하를 위한 1차적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LG화학은 연내 미국과 중국에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희귀 유전성 비만 신약 LR19021은 연내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 LR19023은 현재 전임상 단

계로 고행암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이 자리에서 m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약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신약개발 부문 총괄 책임자인 권세창 사장은 자체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독자적 mRNA

A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연구센터는 한미정밀화학이 생산한 원료물질을 이용한 mRNA 플랫폼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 최근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한미약품은 이 후보물질이 다양한 변이 중에서도 우수한 중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른 시일내 임상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항암 백신, 대사성질환 및 의학적 미증족 수요가 높은 리소좀 축적 질환 등에 관한 연구에도 착수했다.

HK이노엔은 현재 개발 중인 A2AR 계열 면역항암신약과 선택적 RET저해제 및 4세대 EGFR저해제 계열 표적항암신약, DCLK1 저해제 계열 표적항암신약을 소개했다. 이 중 선택적 RET저해제 및 4세대 EGFR저해제 신약은 올해 중 비임상을 마치고 글로벌 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30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을 누적 매출 2조 규모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씨젠은 전 세계가 씨젠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진단시약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발 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SGDDS'와 함께, 추출시약과 효소, 올리고 등 진단시약 개발에 필요한 원재료까지 포함된다.

씨젠 천종윤 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현지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손쉽게 개발해 인간의 질병은 물론 동물, 식물, 식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단시약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씨젠은 이러한 '분자진단 플랫폼' 사업의 첫걸음으로 올해에 100개의 진단시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SK플라즈마, 희귀질환 사업영역 확대

NRDO 프로젝트로 CAR-T 치료제

SK플라즈마가 '혈액제제'이란 전문 기업 이미지를 벗고 희귀난치성질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 재편기로 했다.

SK플라즈마는 지난해부터 티움바이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진행한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고 13일 밝혔다.

SK플라즈마는 지난 해 유상증자를 통해 SK디스커버리, 티움, 한투파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연구 없이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 조직을 가동해 왔다. NRDO는 외부에서 발굴·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상용화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새로운 R&D 전략이다.

SK플라즈마는 NRDO 첫번째 프로젝트를 큐로셀이 진행하고 있는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큐로셀이 진행한 기업공개 사전 투자유치(Pre-IP O)에서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으며, 향후 큐로셀과 CAR-T 치료제에



대한국내외의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CAR-T세포치료제는 환자면역세포를 분리해 유전자 조작 한 뒤 대량 배양 과정을 거친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첨단 항암세포치료제다.

양사는 ▲자가 유래 ▲동종 유래 ▲고형암 타깃 치료제 등 한 차원 높은 CAR-T 기술 개발까지 협력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SK플라즈마는 NRDO 조직을 중심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빠르고 면밀히 검토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파트너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SK플라즈마 김윤호 대표(사진)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환자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분야"라며 "NRDO 중심의 R&D 전략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 전문 제약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표적항암제 美 임상1상 돌입

높은 뇌 투과율 등 우수한 효능
R&D 효율성·추진력 극대화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중인 표적항암 혁신신약 'SKL27969'의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 16개 기관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다.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등을 평가해 최대 내약용량 및 2상

투여용량을 확인한 후 교모세포종, 비소세포폐암, 삼중음성유방암 등 환자에 대한 예비 항암효과를 평가한다.

SKL27969는 암세포의 증식 및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PRMT5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차세대 항암신약이다. SK바이오팜은 SKL27969를 뇌종양 및 뇌전이암 대상 '계열 내 최고 신약(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실제 SKL27969는 전임상 시험에서 경쟁약물

대비 긴 반감기, 높은 뇌 투과율 등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30여년간 뇌질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뇌혈관 장벽 투과 약물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항암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항암연구소를 설립해 R&D를 본격화했으며,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R&D 효율성 및 추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400억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

신주 발행 통해 유상증자 결정
재생 치료제 임상 진입 앞둔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 전문 혁신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80억원의 시리즈A 투자에 이어 4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단행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총 387억원의 시리즈B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을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앞서 산업은행, 아산사회복지재단, 동화약품, 원익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이 참여한 시리즈B 1라운드에 연이어 투자를 결정한 곳은 이앤벤처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넬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까지 총 5곳이다.

이 중 신규 투자로 이름을 올린 이앤벤처파트너스를 제외한 4곳이 시리즈A에 이어 시리즈B 후속 투자를 단행했다.

이번 시리즈B 라운드가 단기간에 마



우리가 된 배경에는 재생 치료제 임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기술에 대한 가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장 오가노이드와 칩셋 오가노이드의 비임상 마무리 단계로 연내 임상 1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은 물론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약물 평가 플랫폼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019년 시드 투자 5억원, 2020년 시리즈A를 80억원, 2021년 시리즈B 1라운드 180억원을 각각 유치했으며 이번 210억원의 시리즈B 2, 3, 4라운드 투자유치를 포함, 약 480억원 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그동안 확보한 자금으로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이앤드리테일 '키디크루' 서포터즈 모집

이앤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아동 쇼핑 앱 키디키디가 공식 서포터즈 '키디크루(kidi crew)'를 모집한다.

키디크루는 키디키디의 신상품을 미리 체험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홍보하는 플랫폼 엠버서더로, 월별 20만원 상당의 포인트 혹은 상품을 제공받으며 활동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모집하는 키디크루 모집인원은 총 75명으로 현재 출산 예정인 임신부와 0세부터 10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유아동 쇼핑물, 모바일 앱 등으로 쇼핑을 즐겨하고, 개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운영하는 부모는 키디크루로 발탁될 확률이 높다.

지원자는 이달 23일까지 키디키디 앱과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 개별 연락을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키디크루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오늘의 날씨

